

## 턱교정수술 후 하악상행지의 해부학적 변화

서울중앙병원 치과

김재승

턱교정술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나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 등으로 상행지(mandibular ramus)에서 이루어진다. 수술 후에 상행지에 해부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가하는 것은 관심있는 일이다. 인체의 해부학적 형태나 위치가 최대로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수술 후에도 가능한 원래의 모양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수술에 의하여 생긴 해부학적 형태나 위치의 변화가 작다면 무리없이 적응하며, 수술에 의한 변화가 커지면 homeostasis를 통하여 원래의 모양과

유사하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수술의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턱교정수술에 있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SSRO(하악상행지의 시상골절단술)를 예로 들면, 안쪽 상행지 부위가 후방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pterygomasseteric sling을 후방으로 압박하게 된다. 그 정도가 작은 경우에는 이 부위에서 골흡수가 일어나지만, 후방돌출량이 과도하면 재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modified S.S.R.O.의 술식이 구조적인 면에서 가장 안정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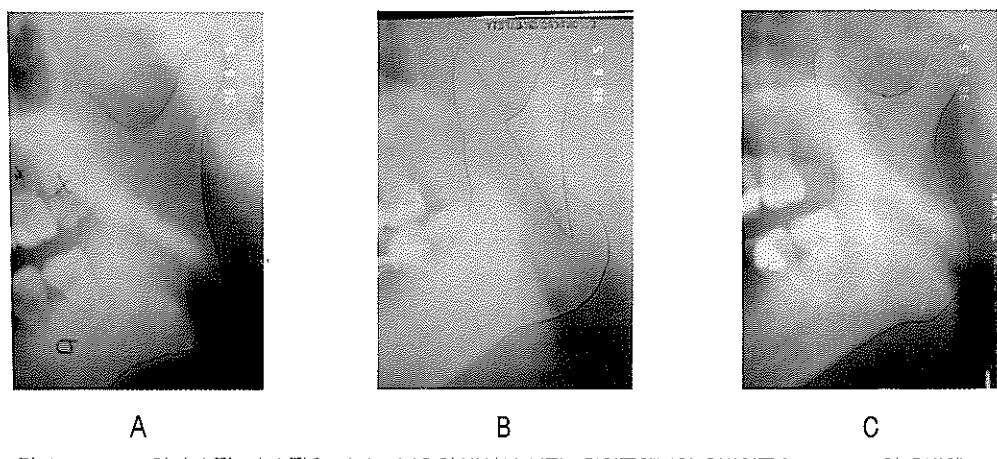


그림 1. I.V.R.O.의 수술전·수술직후. 수술 1년후의 방사선 사진 : 하악골체부의 후방이동으로 ramus의 후방에 step이 형성되었으며(B). 수술 1년후 Ramas의 remodelling이 이루어졌으나 Coronoid process와 condylar process간의 거리는 감소된 상태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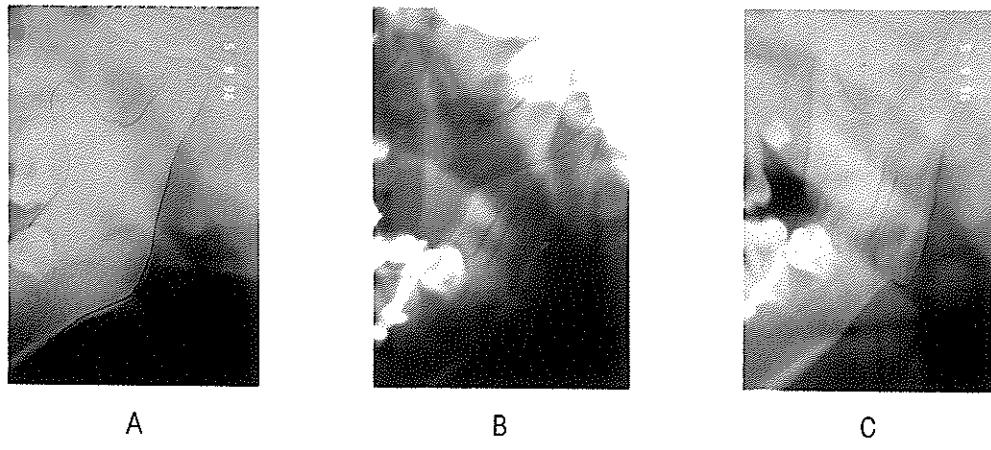


그림 2. S. S. R.O의 수술전·수술직후. 수술 1년후의 방사선 사진 : 하악골체부의 후방이동으로 생긴 stop(B)이 시  
간이 감에 따라 Remodelling이 되었으나 Gonial angle이 불규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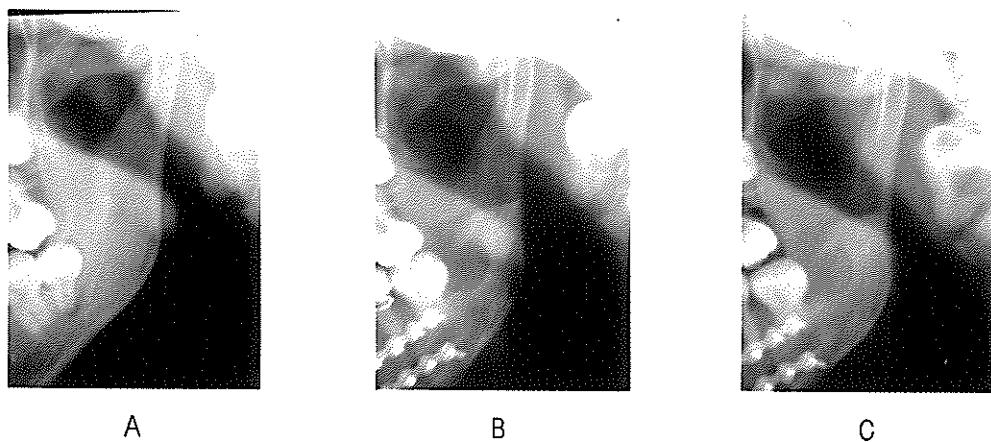


그림 3. Modified S.S.R.O의 수술전·수술직후. 수술 1년후의 방사선 사진 : Ramus의 후방 및 Genial angle의 형  
태가 수술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